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

한상윤**·남석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502명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하여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형에 속할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사회적 배제, 우울, 잠재계층분석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hsangyoon@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namseokin@yonsei.ac.kr)

I. 서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 한없이 깊은 슬픔이 찾아온다. 고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적응해나가야 하는 데서 비롯하는 반응이다”(Samuel, 2017). 배우자와의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사별은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Stroebe & Stroebe, 1983).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 노인에 비하여 훨씬 높는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8.7년인데 반해 65세 여성은 22.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이와 같은 기대여명의 차이 등으로 여성 독거노인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2019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약 72.6%가 여성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b).

빠른 고령화와 함께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권봉목·김연주·이정랑, 2018). 최근 연구들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별 경험이나 삶의 적응 경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있으나(김미영, 2020; 송지연·정혜숙, 2019; 오혜인·김주현·주경희, 2020), 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차원의 배제나 어려움 등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시점 여성 노인이 대부분 사회 활동 보다는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 사별 이후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빈곤과 차별의 상황을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또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남성 독거노인에 비하여 은퇴 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연금소득이 적은 데다 유족연금의 보장성도 충분치 않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 이는 남성이 생계를,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표준모형으로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과 사회참여를 간과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빈곤 취약성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 여성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나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주거, 근로,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 결핍에 처하기 쉽다(유지영, 2020; Islam, 2020).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들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깊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조차 단절됨에 따라 이들의 상실감 극복 및 사회참여는 더욱 어려워진다(United Nations, 2020).

상실감 극복의 실패와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정신적 어려움으로(Sasson & Umberson, 2013), 배우자 사별은 극심한 우울을 유발하는 생애 사건이기도 하다(Silverstein & Bengtson, 1994). 우울은 치매, 파킨슨 등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며(Byers & Yaffe, 2011; Mulyala & Varghese, 2010),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길 포기하는 자기방임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기도 한다(남석인 외, 2016). 우리나라 노인, 그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회 박탈 및 차별로 인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김승연·고선규·권정혜, 2007).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생애 전반에 걸친 젠더 불평등에 의한 맥락을 반영하여 배우자 사별 이후 홀로 된 여성 노인의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또한 이들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도출된 배제 유형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처음 프랑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는 기존 빈곤 차원에서 나아가 기회의 부족 및 차별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배제라는 다차원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European Commission, 2004; United Nations, 2010).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는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배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주요 차원과 개인, 가정, 그룹, 지역 사회, 국가의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함을 강조하였다(Popay et al., 2008).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 개념은 국내에서는 1997년 말 IMF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의 여파로 근로 빈곤, 상대적 빈곤 등 새로운 빈곤 계층이 부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박능후·최민정, 2014). 김안나 외(2008)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영역으로만 접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United Nations, 2010).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취약계층 중 하나는 노인이다(김안나 외, 2008).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OECD(2018)가 발표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Lack of social support) 지표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지표는 국가별,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친척 등 지인의 부재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우리나라 노인의 34.7%가 고립된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사회적 지지 부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더해 성별, 경제적 수준 등 추가적인 취약성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원서진, 2020).

현시점의 여성 노인들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표준모형으로 하는 정책적 기조하에 가사 및 돌봄 역할을 주로 담당해오면서 전 생애에 걸쳐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왔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은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어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남성 노인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선, 2002; 송효진 외, 2020; 안미영, 2017).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부양자인 배우자 사별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교차되면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McGarry & Schoeni, 2005).

United Nations(UN)은 전 세계적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의 빈곤 및 사회적 비하 등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인권 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하여 매년 6월 23일을 배우자 사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idows Day)로 지정하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5)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의 빈곤 완화에 있어 성차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 또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적 배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울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해왔다(Hsieh & Leung, 2019; Leary, 1990). Feng, Jones와 Phillips(2019)의 연구 및 김창기와 이진성(2013)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의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회적 배제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이들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특히 노인 중에서도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경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측면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Holm, Berland, & Severinsson, 2019). Tong et al.(2011)은 사회적 배제가 우울 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소득, 주거,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우울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수의 양적 연구 이외에도 권봉목, 김연주와 이정랑(2018)은 배우자 사별을 한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건강 영역 등에서 배제가 이루어졌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중요한 예측요인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우울 수준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의 2018년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가족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도별 조사구로 층화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주재선 외, 2019). 본 연구의 분석에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총 502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배제 지표

본 연구에서는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

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선정하였다. Macleod et al.(2019)은 다수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실증 연구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배제의 예측요인, 지표 및 결과 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 시민 참여,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환경 및 이웃, 건강 및 웰빙 그리고 차별 등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표 1> Macleod et al.(2019)의 사회적 배제 영역 정의

영역	정의 및 개별 지표
서비스 접근	공적 및 사적 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 참여	문화, 교육, 정치적 참여 등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가족, 친구 및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주관적, 객관적 재무 상황, 소득, 주거 및 자산 등
환경 및 이웃	지리적 자원, 이웃, 시설, 지역사회, 안전 등
건강 및 웰빙	주관적, 객관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차별	부정적 묘사, 편견, 무시, 목살 등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참고하였다. 김안나(2007)의 지표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을 살펴보는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등 총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최재성과 김혜진(2020)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주거 등 총 6차원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박능후와 최민정(2014), 오승은, 김본과 민주홍(2020) 또한 6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지표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기 위한 9개의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2〉 사회적 배제 지표 구성

지표	기준*	내용
소득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주거	1	자가, 무상 이외 (전세, 보증금 있는/없는 월세, 사글세 등)
	0	자가, 무상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포함)
주관적 경제 수준	1	보통, 조금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0	매우 여유 있음, 여유가 있는 편
직업	1	직업 없음
	0	직업 있음
주관적 건강 수준	1	보통, 조금 나쁜 편, 매우 나쁨
	0	매우 좋음, 대체로 좋은 편
여가 만족도	1	보통, 조금 부족, 매우 부족
	0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사회참여	1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미참여
	0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참여
건강검진	1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
	0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받지 않음
	0	공적연금을 받음

* 기준 1 - 배제 / 기준 0 - 비배제

** 국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인 동시에 OECD 빈곤층 선정 기준임

*** 국민연금(유족연금 포함) 및 특수직역연금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축약한 축약형 CES-D-10 척도를 사용하였다(주재선 외, 2019). CES-D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우울증 측정 도구로, 본 축약형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e.g.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등). 이 중 5번과 8번 문항의 경우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부터 4의 범위를 원문항 척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0(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부터 3(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는 .89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5.0 및 Mplus 7.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검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계층 유형의 수를 결정하고, 분류율에 따라 잠재계층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Denson & Ing, 2014). 유형 분류를 위한 정보부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SSABIC(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하였고, 세 가지 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으로는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및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의 p 값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의도를 판단하였다. 한편 Entropy 지수는 0부터 1의 범위이며, 값이 클수록 잠재계층의 유형 분류 정확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Clark, 2010).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적어도 표본의 1% 미만인 잠재계층 유형이 없는 경우,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Nooner et al., 201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은 만 65~69세의 노인이 36.1%, 만 70~74세의 노인이 52.6%로, 만 75세 이상 노인 11.4%에 비하여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인 경우가 23.9%였으며, 초졸이 47.8%로 대다수가 초졸 이

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무교인 36.1%에 비하여 종교가 있는 경우가 63.9%였고, 독거여부에서는 독거가 64.7%로 동거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아 대다수의 노인이 독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502)

구분		빈도	%
연령	만 65~69세	181	36.1
	만 70~74세	264	52.6
	만 75세 이상	57	11.4
교육수준	무학	120	23.9
	초졸	240	47.8
	중졸	84	16.7
	고졸이상	58	11.6
종교유무	없음	181	36.1
	있음	321	63.9
독거여부	독거	325	64.7
	동거	177	35.3

2.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의 우울 평균은 6.74(SD=5.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각 지표별로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 다수의 지표에서 배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n=502)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우울		평균(표준편차)	6.74(5.66)
사회적 배제	소득	비배제	207(41.2)
		배제	295(58.8)
	주거	비배제	431(85.9)
		배제	71(14.1)
	주관적 경제 수준	비배제	343(68.3)
		배제	159(31.7)
직업	비배제	195(38.8)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주관적 건강 수준	배제	307(61.2)
	비배제	332(66.1)
여가 만족도	배제	170(33.9)
	비배제	328(65.3)
사회참여	배제	174(34.7)
	비배제	188(37.5)
건강검진	배제	314(62.5)
	비배제	472(94.0)
공적연금	배제	30(6.0)
	비배제	252(50.2)
	배제	250(49.8)

3.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유형 분류에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정보부합도 지수,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 엔트로피 지수 및 분류율 등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는 동시에 집단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방식은 유형 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고, 4개의 유형에서 BIC 및 SSABIC가 증가하고, LMR, BLRT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tropy도 3개의 유형보다 4개의 유형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을 고려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적의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유형별 분류율은 유형 1에 40.6%, 유형 2에 29.5%, 유형 3에 29.9%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 중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진 경우는 없었으므로, 분류율 또한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Nooner et al., 2010).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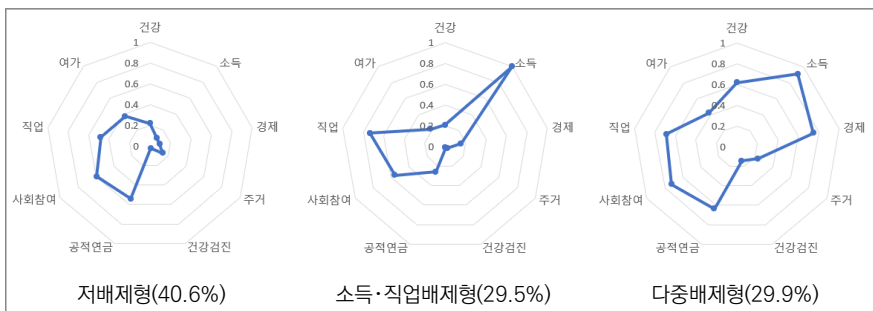
〈표 5〉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1	2	3	4
AIC		5282.882	5173.191	5150.761	5144.337
BIC		5320.849	5253.345	5273.101	5308.862
SSABIC		5292.283	5193.037	5181.052	5185.073
LMR(ρ)		-	.001	.012	.658
BLRT(ρ)		-	<.001	<.001	.068
Entropy		-	.646	.663	.611
잠재계층 분류율(%)	1	-	30.3	29.5	18.5
	2	-	69.7	40.6	25.3
	3	-	-	29.9	26.5
	4	-	-	-	29.7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도출된 3개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지표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전체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여주는 것이 없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고르게 배제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유형 또한 사회참여나 공적연금 지표 등에 있어서 조건부 확률값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배제형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저배제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저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6을 넘고, 타 유형에 비해서도 두 지표에서 높은 배제 확률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지표에서는 배제에 속할 확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직업배제형으로 명명하였다. 소득·직업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며, 타 유형에 비해서도 고르게 높은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에 다차원적으로 배제될 확률이 높아 다중배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29.9%가 다중배제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지표별 사회적 배제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표 6〉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구성 비율

지표	유형 1 (저배제형)	유형 2 (소득·직업배제형)	유형 3 (다중배제형)
	40.6%	29.5%	29.9%
소득	0.101	1.000	0.914
주거	0.141	0.029	0.236
주관적 경제 수준	0.097	0.156	0.752
직업	0.482	0.733	0.689
주관적 건강 수준	0.217	0.204	0.618
여가 만족도	0.371	0.215	0.423
사회참여	0.594	0.558	0.726
건강검진	0.025	0.014	0.146
공적연금	0.541	0.260	0.638



[그림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

4.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 측면에서는 다중배제형의 평균 연령이 70.85세($SD=3.04$), 소득·직업배제형이 70.99세($SD=2.91$)로 저배제형의 평균 연령인 69.85세($SD=3.14$)에 비하여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저배제형에 속한 노인의 최종학력이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에 속한 노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유무는 세 유형이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무교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 및 소

독·직업배제형에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n=502)

구분	저배제형 (a)	소득·직업배제형 (b)	다중배제형 (c)	F
	(n = 204)	(n = 148)	(n = 150)	
	명(%)	명(%)	명(%)	
연령				7.463**
평균 (표준편차)	69.85(3.14)	70.99(2.91)	70.85(3.04)	b, c > a
교육수준				11.53***
무학	34(16.7)	33(22.3)	53(35.3)	a > b, c
초졸	93(45.6)	79(53.4)	68(45.3)	
중졸	41(20.1)	23(15.5)	20(13.3)	
고졸이상	36(17.7)	13(8.8)	9(6.0)	
종교유무				.54
없음	72(35.3)	50(33.8)	59(39.3)	
있음	132(64.7)	98(66.2)	91(60.7)	
독거여부				25.39***
독거	99(48.5)	123(83.1)	103(68.7)	a > c > b
동거	105(51.5)	25(16.9)	47(31.3)	

주1. *p<.05, **p<.01, ***p<.001.

주2. 유의미한 F값은 Scheffe 방법을 통하여 사후검증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5.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족의 동거여부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은 최소 1.003에서 최대 1.363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Hair et al., 1995).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78$, $p<.05$). 그리고 모형 2는 통제변수 및 사회적 배제 유형을 모두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퍼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763$, $p<.001$), R^2 의 변화량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R^2=.093$, $p<.001$). 이는 사회적 배제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있어 유의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배제형에 비해 다중배제형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332$, $p<.001$). 그리고 저배제형과 소득·직업 배제형 간의 우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n=502$)

구분	모형1			모형2		
	B	β	S.E	B	β	S.E
상수	8.455	—	.985	6.625	—	.995
연령	.072	.008	.396	-.101	-.012	.381
교육수준	-1.234*	-.093	.601	-.540	-.041	.581
종교유무	-1.010	-.086	.526	-.945	-.080	.502
독거여부	-.733	-.062	.525	-.364	-.031	.526
사회적 배제 유형 (기준: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		.708	.057	.612
다중배제형		—		4.096***	.332	.598
F		2.878*			10.763***	
R^2 (adjusted R^2)		.023(.015)			.115(.105)	
R^2 변화량		—			.093***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한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개의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총 9개의 지표별 배제 및 비배제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참여 62.5%, 직업 61.2%, 소득 58.8% 순으로 배제율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공적연금 또한 무려 49.8%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가장 낮은 사회적 배제 유형으로 나타난 저배제형조차도 비배제형으로 명명할 수 없었던 이유이며,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현재 사회적 배제에 놓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 그리고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취약성이 교차된 경우, 사회적 배제에 매우 취약함을 주장한 결과와도 일치한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둘째, 배우자 사별 여성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패턴을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 등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먼저 저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며, 모든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소득 지표에서 비배제를 의미하는 아주 낮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였다. 그러나 저배제형 또한 사회참여,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는 낮지 않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인 소득·직업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며,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타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직업 지표를 제외하고는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유형인 다중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29.9%가 속하며,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 사회참여, 직업, 공적연금 및 주관적 건강 수준 등의 지표에서는 심각한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경제적 빈곤만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안나 외, 2008; 박능후·최민정, 2014; Macleod et al., 2019).

셋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별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선 연령 측면에서 저배제형에 비하여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에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배제에 취약해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

제의 취약성을 보고해온 바와 같이(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유지영, 2020), 본 연구에서도 소득·직업배제형, 다중배제형, 저배제형 순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배제형을 기준그룹으로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형은 저배제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축약형 CES-D-10 척도의 경우 절단점이 10점인 점을 고려할 때, 다중배제형의 우울 평균 점수는 10.32점($SD=.62$)으로 이는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평균적으로 우울 증상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김창기·이진성, 2013; Feng, Jones, & Phillips, 2019; Leary, 1990).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따른 우울 수준을 낮추고, 이들의 사회적 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 배제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여성 노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누적된 불평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시점 여성 노인은 대부분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 및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왔다. 이로 인하여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가구 단위의 생계부양자 변동은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생애과정 동안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및 빈곤의 여성화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인해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에 급작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었으며,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가 남성생계부양자모형을 기반으로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간과해왔던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여성 배제, 그리고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인 만큼 이를 개인의 빈곤 혹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 사별 이후 여성 노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상속 관계에서 생존배우자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 선취분 제도의 도입,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한도의 증액 등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송효진 외, 2020; 정다영, 2017). 또한

이와 더불어 주거 및 돌봄에 있어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은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기존 거주지에서의 계속 거주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박인환, 2018).

둘째, 저배제형 및 소득·직업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은 유의하게 더 높은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중배제형의 배제 영역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소득 및 직업에서만 배제가 나타난 소득·직업배제형과 비교했을 때, 다중배제형이 추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배제형이 높은 배제 확률을 보인 지표는 소득과 직업을 제외하면 총 네 가지로, 주관적 경제 수준, 사회참여, 공적연금, 주관적 건강 수준 순이다. 유족연금은 여성만을 위한 연금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여성 노인들이 주로 가사 활동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기대여명이 더 길다는 점에서 유족연금은 여성 노인들의 중요한 노후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박진화, 2020). 그러므로 유족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배우자 사별 이후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주관적 경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참여 및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의 배제는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의 감소 등을 보고하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함께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개발된 건강관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SMiLE(Senior Meaning in Life Enhancement)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증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한상윤 외, 2020). 이와 같이 다학제적으로 개발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사회 내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연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 저배제형이나 소득·직업배제형보다 다중배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중 후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배제형이 보

여주고 있는 배제된 지표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되,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득과 직업에 대한 배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다차원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게 있어 직업의 유무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지속일 수 있으며(Meschede et al., 2011), 이에 직업 지표에서의 배제를 사회적 배제만의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직업에 대한 배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여성으로서 살아온 생애 전반에 걸친 맥락을 반영하여 배우자 사별 이후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출된 배제 유형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시점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및 우울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배제 양상 및 우울의 변화, 그리고 누적된 배제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집단 내 차이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를 사별한 시점에 따른 차이 혹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 등 집단 내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직업의 경우, 고령의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고령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의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 기반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확장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8).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서울: 보험연구원.
- 김미영(2020). “반복적인 가족사별을 경험한 여성 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제2호. 105-122.
- 공미혜(2020.10.06.). “여성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http://www.busan.com>에서 2020.10.30. 인출.
- 권봉목·김연주·이정량(2018). “배우자 사별을 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9권 제4호. 41-51.
- 김수진·김주현·주경희(2020). “사회적 배제 잠재유형이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제40권 제1호. 33-49.
- 김승연·고선규·권정혜(2007).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3호. 573-596.
- 김안나(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351-379.
-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원일·윤필경·유정예(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창기·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96-307.
- 남석인·이예진·김보미·이은경(2016). “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44권 제1호. 161-187.
- 박능후·최민정(2014).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325-354.
- 박명선(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175-204.
- 박인환(2018).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

- 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131-173.
- 박진화(2020).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젠더 차이 변화 연구: 제도의 외적 및 내적 개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제1호. 1287-1299.
- 송지연·정혜숙(2019). “노년기에 사별한 여성 재가노인의 주거공간의 의미 재구성”. 노인복지연구. 제74권 제2호. 87-121.
- 송효진·선보영·성경·정가원·박수경(2020).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3권 제2호. 7-34.
- 오승은·김본·민주홍(2020).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사용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화: A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2호. 89-111.
- 오혜인·김주현·주경희(2020). “사별 후, 혼자 남겨진 여성노인들의 일상 들여다보기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제67권 제2호. 161-192.
- 원서진(2020).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참여와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309-316.
- 원혜진·송신애(2019).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4호. 145-172.
- 유지영(2020). “독거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과 빈곤 결정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3-221.
- 이정화·오영은(2016).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우울 및 자살생각: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7권 제4호. 831-850.
- 정다영(2017).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가족법연구. 제31권 제3호. 271-318.
- 주재선·김영란·이동선·정성미·송치선·한진영·이진숙·양준영·손창균·장숙량(2019).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미영·이승은·박현식(2015).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9호. 9-29.
- 최재성·김혜진(2019). “노인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분석: 다중적 배제의 잠재집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3호. 193-224.
- 통계청(2020a). 2020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_____(2020b). 인구총조사. 대전: 통계청.

- 한상윤·김향희·유희천·남석인(2020). “노인의 삼킴장애와 자기방임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제40권 제5호. 1003-1020.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6). Negative cognitions and avoidance in emotional problems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1), 1657-1672.
- Byers, A. L., & Yaffe, K. (2011). Depression an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Nature Review Neurology*, 7(6), 323-331.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Denson, N., & Ing, M. (2014). Latent Class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An Illustrative Example of Pluralistic Orient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5(5), 508-526.
- European Commission(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 _____(2015). Why older women are much more exposed to the risk of poverty than older men. <https://ec.europa.eu/social/main에서> 2020.11.3. 인출.
- Feng, Z., Jones, K., & Phillips, D. R. (2019). Social exclusi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among older people in China: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82, 238-244.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Holm, A. L., Berland, A. K., & Severinsson, E. (2019). Factors that influence the health of older widows and widowers—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Nursing Open*. 6(2), 591-611.
- Hsieh, M., & Leung, P. (2019).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older adults: factors for designing healthcare settings in Taipei, Taiwan. *Social Work in Health Care*, 58(4), 368-381.
- Islam, M. (2020). Socio-economical conditions of aged widow in Bangladesh. *ABC Research Alert*, 8(2), 84-98.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221-229.
- Macleod, C. A., Ross, A., Sacker, A., Netuveli, G., & Windle, G. (2019). Re-thinking social exclusion in later life: a case for a new framework for measurement. *Ageing & Society*, 39(1), 74-111.
- McGarry, K., & Schoeni, R. F. (2005). Widow(er)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0(3), 160-168.
- Meschede, T., Cronin, M., Sullivan, L., & Shapiro, T. (2011). *Rising Economic Insecurity Among Senior Single Women*. Research and Policy Brief, October 2011, Demos.org and Institute on Assets and Social Policy, Brandeis University, Living Longer on Less Series.
- Muliyala, K. P., & Varghese, M. (2010).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mentia. *Annals of Indian Academy of Neurology*, 13(2), 69-73.
-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Everson, M. D.,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 OECD(2018), Lack of social support (indicator). doi: 10.1787/0cfbe26f-en 에서 2020.10.31. 인출.
- Popay, J., Escorel, S., Hernandez, M., Johnston, H., Mathieson, J., & Rispel, L. on behalf of the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2008).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Final Report of the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s*, 1, 385-401.
- Samuel, J.(2017). *Grief works: Stories of life, death and surviving*. London: Penguin Books.

- Sasson, I., & Umberson, D. J. (2013). Widowhood and depression: New light on gender differences, sel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B(1), 135-145.
- Silverstein, M., & Bengston, V. L. (1994). Does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The contingencies of declining health and widow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38(7), 943-957.
- Stroebe, M. S., & Stroebe, W. (1983). Who suffers more? Sex differences in health risks of the widowed. *Psychological Bulletin*, 93(2), 279-301.
- Tong, H. M., Lai, D. W. L., Zeng, Q., & Xu, W. Y. (2011).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ve Symptoms: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in Shanghai,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6(4), 349-364.
- Umberson, D., Wortman, C. B., & Kessler, R. C. (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10-24.
- United Nations(2010). *Analysing and measuring social inclusion in a global context*. NY: United Nations.
- _____(2020). International Widows' Day 23 June. <https://www.un.org/en/observances/widows-day/messages>에서 2020.10.30. 인출.

Abstract

A Study on Patterns i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Widows

Sangyoon Han*·Seok In Na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of older widows. Older women in Korea have suffered from margin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gender division of paid and unpaid labor; as a result, they are often not entitled to public pension,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histories. Therefor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older widows are likely to face poverty and discrimination due to difficulties regarding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A total of 502 older widows(aged 65+)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classes of social exclusion were selected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the low exclusion class,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amining depression by clas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low exclusion class, whereas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severe depres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non-exclusion class among older widows in Korea. Older adults,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may become even more vulnerable when they are women and when they have lost a spouse.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meliorating social exclu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widows.

Keywords : Older widows, Social exclusion, Depression, Latent class analysi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